

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19.09	↓ 코스닥	809.22
	(-12.82)		(-4.73)
↑ 금리 (연이자율)	3.858	↑ 환율 (원/달러)	1322.20
	(+0.003)		(+0.80)

[뉴스]
정망정원에 곤돌라
휴식·문화 흐르는
그레이트 한강 만든다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M-커버스토리

수출 기동 무너지자 반도체 지원 공감대

‘K-칩스법’ 처리 급물살

여야 16일 조세소위 열고 심사
2월 반도체 수출액 43% 급감
위기 커지자 민주당 입장 선회
이재명 “지원책 서둘러 마련을”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의 올해 2월 수출액이 업황 불황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42.5% 줄어드는 등 반도체 산업에 위기가 현실로 찾아온 가운데, 정치권이 지난 두 번의 좌절을 딛고 머리를 맞대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을 구원등판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기사 4면〉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등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일명 ‘K-칩스법’의 한 축인 조세특례제한법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룬다. 국회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세계개편안은 여야 공방 속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리는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추경호 기획재정부 겸 기획재정부 총리에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주문했고 정부는 대기업의 세액공제 한도를 투자금액의 8%에서 15%로 상향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하는 안을 제출했다. 기업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합하면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기재위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민주당은 정기국회 당시 큰 폭의 세액공제율 인상을 반대했던 기재부가 입장을 바꾼 것을 비판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직면한 반도체 위기에서 두 번의 고배를 마신 것이다.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여야는 우리 반도체산업의 위기가 커지고 있어 세액공제 확대 중심의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임위 통과에 키를 잡고 있는 민주당은 신중한 분위기였다.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특별법을 다루는 조세소위도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이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민주당의 힘만으로 상임위 처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전향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반도체특별법 재논의에 힘을 보탤다.

〈4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에스오일(S-OIL) 사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등과 시삽하고 있다.

“외국기업 투자 규제 과감히 개선할 것”

尹 ‘사힌 프로젝트’ 기공식 참석 한-사우디 경제 외교 대표적 성과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 경쟁력강화

9조3000억원 규모로 국내 석유화학 분야 최대 투자이자,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인 ‘사힌 프로젝트’가 9일 첫 삽을 떴다.

지난해 11월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공식 방한해 29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MOU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힌 프로젝트 투자가 최종 확정됐으며 이후 신속한 투자 진행으로 기공식을 진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에스오일(S-OIL)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최첨단 석유화학시설 사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했다. 〈관련기사 2·6면〉

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각별한 우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사힌 프로젝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린다”며 “한국과 사우디는 60년이 넘는 기

간 동안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로 함께 발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양국의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합의했다”며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의 경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아가기로 하고, 투자 계약과 MOU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바로 오늘, 한-사우디 경제외교의 대표적 성과인 사힌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힌 프로젝트는 원유에서 추출하는 나프타의 생산 수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최신 공정이 세계 최초로 적용이 된다”며 “3년 후에는 고부가 가치 석유화학 제품들을 생산해 국내 산업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고, 세계 각지로 수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외국

인 투자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사힌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원유로부터 추출하는 나프타 생산의 수율을 3배가량 높여 산업원료를 최대치로 생산하는 최신 공정이 세계 최초로 상업화되며 ▲단일 설비 기준으로 세계 최대규모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하는 석유화학 생산시설이 울산에 구축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산업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 수출함으로써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건설기간 동안 연계 추산 최대 3조원의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우리나라 수출도 9억불(약 1조2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韓日 양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응원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고 마음의 위로를 보냅니다
한일간 합의는 양국 간 협력 강화와 동북아 안보 공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경제계도 이번 합의정신에 따라 한일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